

J프로젝트 성공 열쇠 ... 사행성 여론에 부담

전남도 '카지노 딜레마'

'카지노 사업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부지 내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남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J프로젝트의 확실한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선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에 필수적이라는 게 내부 분석이지만, 사행성 사업을 터부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의 설치 필요성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남도는 실제로 새 정부 초기 운영했던 정권인수위원회에 'J프로젝트 부지에 카지노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정부도 자체 작성 '대통령 공약사업 리스트'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제한적 허용'을 14대 과제 52개 세부사업에 포함시켜 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전남도가 이차림 카지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으

로 관광객 유치나 사업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J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선 결국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전남도는 ▲국내에 설치된 17개 카지노 가운데 내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인 강원랜드만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점 ▲국내에서 연간 5천억여원이 해외의 도박장으로 빠져나간다는 점 ▲아시아권 카지노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점 등을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개설돼야 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전남도가 최근 미국 및 대만의 투자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J프로젝트 부지 내 송전지구에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설치하려는 것도 장기적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설치하기 위한 전(前)단계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남도도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폐광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2015년 까지 한시적으로 내국인출입이 허용

된 강원랜드처럼, 현재의 기업도시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전남의 기업도시(J프로젝트)가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복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내국인 출입 카지노'설치 방침을 도 차원에서 공식화하거나 정부부처에 건의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은 아직까지 취하지 않고 있다. 사행성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최근 환경부와 J프로젝트 개발계획 승인을 둘러싸고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국인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장래 어느 시점엔가는 이슈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서도 "정부부처와 개발계획 승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 같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서창 만드리 풍년제

지난달 31일 광주시 서구 세하동 들녘에서 열린 '서창 만드리 풍년제' 재현 행사에 참가한 163명의 주민들이 농군복장을 하고 소리꾼의 선창에 따라 흥겹고 경쾌한 장단의 들노래 '만드리'를 부르고 있다. '만드리'는 음력 7월 15일 백중을 맞아 농군들의 피로를 달고 노동력을 높이기 위해 불렀던 노동요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위기설' 해소 4조5천억 유동성 확보 나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9면)

금호아시아나는 그룹 전체 자산 감축을 통해 4조5천740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호아시아나는 주요 계열사별로 유류자산 매각 등 다각적인 자금확보 방안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먼저 대우건설의 경우 자회사 등 보유 유가증권 매각으로 2천502억원, 서울고속도로 및 일산대교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분 매각으로 3천102억원, 부산 밀리오레 등 유류자산 매각으로 5천억원, 파키스탄 미수금과 내년 상반기 예상되는 대한통운 유상감자 등으로 9천520억원 등 총 2조124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금호산업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일산대교 등 SOC주식 매각으로 1천540억원, 금호생명과 한국

복합물류 등 계열회사 지분매각으로 7천903억원, 한국CES, 대한송유관공사 등 투자유가증권 매각으로 1천22억원, 대불단지 등 기타 유형자산 매각으로 1천40억원 등 총 1조1천505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호생명과 아시아나항공개발 등 계열회사 지분매각으로 5천80억원, 대한통운 유상감자 등을 통해 9천31억원 등 총 1조4천111억원의 자금을 유입해 경영안정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올 상반기말 현재 그룹 자체적으로 4조4천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부채비율도 낮아 차입금 의존도가 국내 10대 그룹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고, 유동비율도 건전한 상황에서 추가로 수조원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룹을 둘러싼 악성 루머는 조만간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인사청문회 이견 원구성 협상 결렬

여야, 상임위 배분엔 합의

이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31일 18대 원구성 협상을 벌인 결과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뤄졌지만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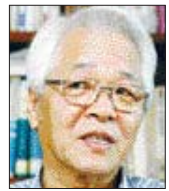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등 주요 내용 7개 항목에 합의를

구성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두고 청와대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합의 상황이 전면 백지화됐다. 앞서 여야는 특위 2개를 비롯해 19개 상임위를 18개로 줄이고 12개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안에 합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늘나라로 날아간 '천년학'

소설가 이청준 별세
금관문화훈장 추서



후 '병신과 머저리', '이에도', '남도 사람', '축제' 등을 발표하며 40여년 간 문단의 큰 기둥 역할을

해왔다.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이상문학상, 대산문학상, 호암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2일 오전 7시 삼성서울병원 문인장. 장자인 장흥균 회진면 진목리 갯나들에서 오후 2시 노제.

유족은 부인 남경자씨와 외동딸은 지씨. 02-3410-6914.

1939년 장흥에서 태어난 고인은 지난 1965년 단편 '퇴원'으로 등단한 이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美, 독도 표기 원상 회복

부시 대통령 지시

미국 지명위원회(BGN)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독도 영유권을 '한국(South Korea)' 또는 '공해(Ocean)'로 환원 조치함에 따라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1주일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관련기사 3면)

BGN이 이날 표기 내용을 바꾼 것은 부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BGN이 독도 영유권을 '주권 미지정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바꿔 표기하면서 불거진 파문은 일단 진정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백악관 루스벨트홀에서 아시아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독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7일 전 상태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이번 조치로 독도의 한국 영유권

은 일단 유지되겠지만 독도의 명칭은 '리앙쿠르 앞'으로 계속 남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외교의 목표는 지난 1977년 이전으로 돌아가 '독도'의 고유 명칭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리앙쿠르 록스'로 명기돼 있는 미국 주요 정부기관의 독도 표기를 '독도'로 변경하는데 주력키로 하는 한편 독도의 영문표기를 'Dokdo'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권은 미국이 독도의 영유권 표기뿐 아니라 공식명칭도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총체적 난맥상을 빚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재차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월 25일 창간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성분으로
100% 천연 성분, 100% 안전 성분

IOPE